

「洞仙記」의 道教思想의 研究

文 範 斗

〈目 次〉

- | | |
|-------------------|--------------------------|
| 1. 序 論 | 4. 1. 繼起的 對立으로서의
人物關係 |
| 2. 作品 形成의 背景 | 4. 2. 主 對立으로서의
人物關係 |
| 2. 1. 命名 | |
| 2. 2. 關聯說話와 「洞仙記」 | |
| 3. 「九雲夢」과의 關係 | 5. 古小說史의 意義 |
| 4. 人物의 關係樣相과 意味 | 6. 結 論 |

1. 序 論

「洞仙記」는 현재 漢文筆舊本으로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 二種과 金起東教授 編『古典小說全集』에 影印된 것¹⁾ 一種을 합하여 二種이 確認되고 있다. 그리고 活字本으로 1913年 10월에 나온 新舊書林版은 24回章體로 된 國文本이다.

이 作品은 金起東教授 編『李朝時代小說論』²⁾에서 간단한 書誌事項과 內容이 알려진 후 전혀 거론되지 않다가 趙東一教授의 『韓國文學通史(3)』³⁾에서 개괄적인 作品論評이 있었을 뿐이다.

金教授는 위의 冊에서 「洞仙記」를 受情小說로 分類하여, 女主人公의 崇高하고 犧牲的인 사랑을 가장 절실하게 표현한 作品으로서 그 文學的 價値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한편 趙東一教授는 壬·丙 兩亂의 戰爭狀況을 變形, 受容한 作品으로 추정하면서, 當代의 名分論의 思考方式에 도전한

1) 金起東 編『(筆寫本)古典小說全集』(亞細亞文化社 1980) 所收

2) 金起東, 『李朝時代小說論』(精研社 1959), 그 후 『李朝時代小說의 研究』(成文閣, 1974)와 『韓國古典小說研究』(教學研究社 1983)에 같은 내용으로 「洞仙記」를 실고 있다.

3) 趙東一, 『韓國文學通史3』(知識產業社, 1984)

作品으로 해석한다. 要컨대, 兩 教授는 이 작품을 愛情小說의 範疇에 넣어 작품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既存 논의를 토대로 本 作品의 本質에 접근하되 특히 그 독창성에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洞仙記」는 洞賓傳說이 發端部와 結末部에 수용되고 있는데, 이는 作品의 成立背景에 관하여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본고는 傳說이 小說로 變異, 受容되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考察과 함께 他 作品과의 相關성을 검토함으로써 여하한 바탕에서 作品이 창작되었는가를 밝혀 보려고 한다. 本 作品은 「九雲夢」의 내용과 상호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 「九雲夢」에 채택된 삼화와 「洞仙記」의 그것과를 비교하여 서로 同一한 원리 위에 창작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작품해석이 보다 용이해지리라 믿는다.

洞賓傳說은 道教思想이 집단의식으로 표상화된 것이다. 따라서 作品은 道教思想을 핵심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사상이 작품의 구조 전체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것은 作品의 發端部에서 結末部로 이르는 줄 과정에서 作家의 主題意識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작품에서는 道教思想이 단편적 요소로 표현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作品의 본질적 의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은 특이하다고 할 것이다. 既存의 研究가 작품속에 나타나는 몇 개의 逸話로써 作品全體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筆者는 이러한 思想이 실제로 作品構造에 미치는 영향과 그 최종적 작가의식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미 밝혀진 漢文筆寫本 中에서 특히 筆寫狀態가 양호하고 가장 충실하게 쓰여진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古書目錄: 한-48-219)을 主 텍스트로 삼아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2. 作品 形成의 背景

2.1. 命名

— 標題 —

표제로 사용된 ‘洞仙記’의 洞仙은 작품 속의 女主人公을 가리킨다. ‘洞仙은 妓女 楚垓를 말하는데, 女主人公 楚垓가 洞仙詞라는 詞曲에 능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字’로서 붙여 준 것이다.’⁴⁾ 이와 같이 女主人公名으로

4) 洞仙曰二十春風楚垓其名以妾長於洞仙詞故人字之謂洞仙耳

도 사용되면서, 동시에 男女主人公의 結緣에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洞仙詞’라는 詞曲名에도 붙여지는 ‘洞仙’이라는 글자의 命名意圖가 주목된다.⁵⁾

여기서 ‘仙’은 ‘神仙’을 뜻하는 字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僊’은 ‘仙’의 故字로서 相互 意味의 차이는 없어 쓰여지고 있다. 「設文」에는 ‘長生僊去’라 하였고, 「釋名」에는 ‘老而不死曰仙, 仙僊也’라고 하였다. 즉 늙어 죽지 않는 사람을 仙이라 하는데 이는 또한 ‘僊’으로도 쓰여 양자 모두 통상 이해되는 神仙을 의미하고 있다.

다음은 ‘仙’이 ‘洞’과 함께 쓰이는 예로써 唐書 「藝文志」에,

僊人好居洞壑, 故普通稱之曰洞僊

라 하고 있다. 여기서의 ‘洞’이란 동굴(幽壑)을 뜻하는 말로, 옛 사람들은 神仙을 洞壑에 기거하는 者로 인식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洞仙이란 동굴(洞) 속에 거하는 神仙(仙)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洞仙의 ‘洞’字가 단지 ‘동굴’을 뜻하는 협의의 의미로 고정된 것 같지는 않다. 「雲笈七籤」에 의하면, 無·妙一, 三元, 三氣와 三才 그리고 萬物의 차례로 宇宙가 생성되고, 三元은 다시 다음과 같이 展開된다.⁶⁾

混洞太無元…天寶君(玉清境, 清微天, 始事)…洞真

赤混太無元…靈寶君(上清境, 禹餘天, 元黃)…洞玄

冥寂玄通元…神寶君(太清境, 大赤天, 玄白)…洞神

역시 同書에서 道敎의 最上境인 洞天福地를 설정하여 말하고 있다.⁷⁾

太上曰十大洞天者, 處大地名山之間, 是上天遣群仙統治之所

위로 볼 때 ‘洞’은 道敎의 敎으로 사용되어 그 最上境인 ‘仙境’을 뜻하는 글

5) 作品에서는 女主人公 楚始가 능했다는 ‘洞仙詞’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中文大辭典』(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華民國 65年)에 의하면 洞仙詞는 ‘洞牌’의 일종이라 하고 있다. 詞牌는 歌唱을 쉽게 하기 위한 지금의 樂譜에 해당한다. 즉 미리 曲調(詞牌)를 정하여 唱者의 기호나 歌唱時의 분위기에 따라 임의로 가사를 붙이게 된다. ‘洞仙詞’ 또한 어느 일정한 멜러디를 가진 曲調를 지칭하는 것으로 中國의 수 많은 詞牌 中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東仙詞는 특별히 東仙歌, 洞仙歌令, 洞仙歌慢 等の 別稱으로도 불린다.

6) 車柱環, 『韓國道敎思想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83) pp. 171 ~ 172 참조.

7) 傅勤家, 『中國道敎中』, (臺灣商務印書, 中華民國六十一年) p. 115 참조.

자임이 확인된다. 실상 道教에서는 人名, 地名, 書名 등에 ‘洞’을 두루 이용하여 道教的 色彩를 드러내고 있다. 要컨대, 神仙을 뜻하는 仙과 함께 쓰여, ‘洞仙’은 洞窟 속에 거하는 神仙이라는 의미에서, 다시 道教的 最上境界인 ‘洞’에 노위는 ‘仙’ 즉 ‘洞中仙’이란 뜻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人名에 洞이 사용될 때는 道教的 教理 또는 그 理想에 窮達한, 즉 通, 徹, 達한 경지의 사람에 붙여진다고 볼수 있다.

이렇게 볼 때, ‘洞’과 ‘仙’은 모두 道教的 用語임에 틀림이 없으며, ‘洞仙記’란 표제는 그러한 의식을 바탕에 두고 命名된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標題의 道教的 性格은 作品末尾의

雨霽風和之日雲纖月白夜琴欲清亮遂聲飄搖至今不絕豈非洞仙詞歟

라는 구절이 있는데, 「洞仙記」의 표현은 이것을 원용한 것으로 보여 그 道教的 特徵을 더욱 잘 드러내고 있다 하겠다.

— 人物名 —

「洞仙記」에 나오는 男主人公 西門勣의 前生名은 ‘洞賓’이다. 洞賓은 中國 道教에서 入仙⁸⁾ 中 一仙으로 추존되는 呂洞賓으로 中國의 重要한 道派인 全眞敎의 宗祖로 받들어지는 唐末의 實際人物이기도 하다. 「洞仙記」는 이 道教上의 人物과 관련시켜

玉洞呂仙之靈移托萬歲山孕出西門勣乃是洞賓也

라 하여 虛構의 인물인 西門勣의 性格을 미리 暗示하고 있다.

— 地名 —

作品의 背景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萬歲山, 桃竹山이란 山兵名도 道仙의 意識下에 사용되고 있다. 원래 山과 神仙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釋名」에 ‘僊入山也, 故其制字 人傍作山也’라 하여 神仙(僊)과 山의 관련성을 들어 ‘仙’의 制字原理는 사람(人)에 산(山)을 덧붙인 것이라고 하였다.⁹⁾

더우기 神仙思想은 인간의 不老長生에 대한 염원이 표현된 것으로 千壽, 萬壽는 그 궁극적 목표이기도 했다. 이에따라 仙家에서는 수 백년을 장수한 仙人들의 이야기를 꾸며냈고¹⁰⁾, 修練과 方術을 통하여 그 祕法을 깨우

8) 道教的 八仙: 漢鍾離, 呂洞賓, 張果老, 藍彩和, 韓湘子, 曹國舅, 何仙姑, 李鐵拐.

9) 李鍾殷, 『韓國詩歌上의 道教思想研究』(普代文化社, 1981), p. 27.

10) 卞址의 「壽四閨錄」에서는 檀君이 1048年 동안 治世하고 阿斯山에 들어가 神仙이 되었다고 하며, 勿稽子是 800歲를 살았고, 權眞人은 500年을 살다가 昇天

치기에 전념했던 것이다. 즉, 道教의 目標은 神仙이 되는 것이고, 그 神仙은 바로 ‘老而不死’하는 者이다. 이렇게 볼 때, 萬歲山은 바로 오래 살고, 죽지 않고자 하는 道教의 理想이 표현된 命名이라 하겠다.

桃竹山 역시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다. 桃는 天桃(仙家에서 하늘 위에 있다는 복숭아), 仙桃盤, 仙桃山(中國 帝室의 딸인 仙桃聖母가 머물렀다는 慶州의 西嶽), 仙人桃(仙果) 등으로 사용되며, ‘竹’ 역시 竹林七賢 등과 같이 道家, 道教的으로 사용되고 있다. 作品 초두에서도 桃竹山을 표현하여,

山在海南教千里世莫知其所終其詳在不

라 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道教的 仙境을 뜻하는 것으로 그 命名의 意圖를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標題를 비롯하여 小說構成上 중요한 요소인 人物, 背景이 모두 道教的으로 命名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러나 小說은 人物, 背景의 有機的 결합을 통해 사건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단편적 요소를 들어 作品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성급한 일일 수 있다. 따라서 다음項에서 作品의 首尾를 일관하는 일련의 법칙을 찾아내어 작품창작에 미친 思想的 背景을 도출하려고 한다.

2.2. 關聯說話와 「洞仙記」

前項에서 男主人公 西門勣의 前生名인 洞賓은 바로 道教에서 呂祖로 추앙하여 八仙의 반열에 두고 있는 실재인물임을 밝혔다. 이 中國의 人物은 道教的 傳來와 함께 우리나라에 이미 많이 소개되어 國內著作의 小說 및 神仙說話 속에 등장하고 있다.¹¹⁾

이 呂洞賓에 관한 傳說是 「洞仙記」의 내용과 상당한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다음은 作品과 洞賓傳說을 비교하여 그 相似點을 밝혀 보고자 한다. 呂洞賓에 관한 傳說是 대개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呂洞賓은 唐末 京兆人으로 이름을 嵒이라 하는데, 그는 字로 行世하였고 號는 純陽子, 回道人이라고 自稱했다. 呂는 會昌年間(841~859)에 두 차례나 進士試에 낙제했는데 그 때 이미 64세의 高齡이었다. 失意한 그는 老軀를 이끌고 江湖를 流浪하다가 鍾離權을 만나 廷命之術을 傳受받았다. 처음에는 終南山에

했다고 한다. 趙汝籍, 『青鶴集』(亞細亞出版社, 1976)

- 11) 「玉樓夢」, 「淑香傳」等 道教的 色彩를 띤 小說 및 「於于野談」等에 呂洞賓에 관한 記事가 나오고 있다.

있었는데 후에 終離가 다시 그를 鶴嶺으로 데리고 가서 上眞祕決을 餘蘊없이 傳授했다. 이렇게 해서 呂는 道를 터득하고 동시에 天道劍法을 體得하였고, 後에는 물론 仙化하여 中國 八仙 中の 하나가 되었고 呂祖라고 불리기도 하였다.¹²⁾

위의 傳說과 「洞仙記」와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洞仙記」의 내용을 구상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導入部〉 1. 西門勳은 治家에 소홀하여 向時 遠去遺世之意만 가지고 있다.
 2. 母夫人의 훈계로 10年 應科하나 낙방하여 탄식하다.
 〈發端部〉 3. 친구와 함께 山川遊覽을 나서다.
 4. 雪英, 瓊瓊과 佳緣을 맺다.
 〈展開部〉 5. 洞仙을 만나 前生因緣임을 확인하다.
 6. 女眞의 침입時 洞仙에 의해 관직에 오르나 모함으로 투옥되다.
 7. 洞仙의 깊은 노력으로 相逢하다.
 〈結末部〉 8. 桃竹山이란 仙境으로 들어간다.

作品과 洞寶傳說을 비교해 보면, 「洞仙記」의 導入部·發端部인 ① ② ③과 結末部인 ⑧이 傳說의 첫 부분 및 끝 부분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음이 確認된다. 즉 「洞仙記」는 男主人公의 신분 뿐 아니라 洞寶傳說의 일부 내용까지도 수용하고 있다. ① ② ③과 傳說의 展開部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주인공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⑧과 結末部은 主人公들이 相異한 中間段階를 거친 후 爲化神仙(혹은 仙境으로 들어간)한 이야기이다. 그 中間段階로써, 小說은 愛情譯으로 결구되어 있고, 傳說은 仙化를 위한 洞寶의 得道修練 過程이 삽입되어 있다.

여기에서 洞寶傳說과 「洞仙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난다. 그 差異는 대체로 현실에 대한 부정에서 爲化神仙하는 中間段階에 집중되어 있다. 洞寶傳說은 道敎의 理想이 集團意識으로 表象화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道仙的 實踐行爲를 노출하여 사상체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따라서 爲化神仙하는 것도 服餌, 服食, 導引, 辟穀 등의 養生法이나 修練行爲를 통한 自己得道の 과정을 보여 주는 반면, 소설은 이 중간단계의 득도와정이 제거된다. 小說에서는 神仙이 되는 과정인 神仙修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人物과 背景의 적절한 결합을 통하여 사건의 추이를

12) 車柱環, 앞의 책, pp. 62~63.

밟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 논의한 바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洞賓 傳說〉	〈洞仙記〉
현실의 부적응	현실의 부적응
상호유랑	산천유람
修練生活	洞仙과의 住緣
爲化神化	苦難과 克服
(地上仙)	
洞天神人	仙 境

傳說과 「洞仙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口을 除外한 〈現實에의 부적응→爲化神仙〉의 부분이다. 그런데 사실은 전설과 소설의 중간부분을 제외한 兩者의 展開部와 結末部가 道敎의 特徵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보겠다.

우선 道敎는 현실과 적응하지 못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燕巖의 「金神仙傳」에서도

或曰仙者 山人也 又曰入山爲仙也 又僊者 僊僊然輕 與之意也 辟殺者 未必仙也 其鬱鬱不得志者也¹³⁾

라 하고 있다. 즉 '辟殺하는 사람이 꼭 仙人이 아니고 울울히 세상에 뜻을 얻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는 「抱朴子」에도 잘 나타나 있다. 즉,

得仙道者多貧賤之士 非勢位之人 又樂太所知 實自淺薄 飢渴榮貴 冒干貨賄 街處妄於苟且¹⁴⁾

라고 한다. 또한 爲化神仙(혹은 仙境으로 들어 가는 것)은 道敎의 궁극적 이상이요, 귀착점이다. 이렇게 볼 때 「洞仙記」가 傳說의 구조를 차용하여 표현하고자 한 바는, 바로 道敎의 출발에서부터 귀착점까지의 道敎의 理想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確認할 수 있다.

이와 같이 〈現實에의 不適應→爲化神仙〉의 일정한 틀은 이미 神仙說話 속에서도 구현되고 있었다. 따라서 「洞仙記」가 소설로서 이러한 보편적

13) 朴趾源, 「金神仙傳」(李佑成 等譯『李朝漢文短篇集』, 潮閣, 1978) 所收

14) 葛洪, 『抱朴子』(世界書局 中華民國 68年), 論仙 卷 第二

인식을 수용할 수 있는 문학적 배경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韓國道派의 계보에 속하는 崔致遠과 金時習에 관한 記事는 이의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이들은 모두 현실에 불만을 가진 자로서 생활하다 그 후 名山에 은거하여 신선이 되었다고 묘사된다.¹⁵⁾

이러한 金時習, 崔致遠 說話 이외에도 역사상의 인물이 爲化神仙했다는 이야기가 散在하고 있고,¹⁶⁾ 이들 說話가 소설로 변용 굴절되는 양상에 대해 학계의 거듭된 논의가 있어왔다. 이들 연구는 神仙說話가 수용된 소설을 다시 神仙小說, 神仙系小說, 道教小說 등으로 유형화하고 있는데, 「洞仙記」가 이들 유형에 적합한 소설인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분명 神仙說話의 유형을 적극 수용하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고 보겠다.

3. 「九雲夢」과의 關係

他 作品과 상호 유사한 모티프를 共有했다는 사실은 동일한 각도에서 작품분석을 가능하게 해 준다. 특히 한 작품에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모티프의 성격이 作品 間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보다 確實해 질 수 있을 것이다. 本 項에서는 「洞仙記」에 수용된 모티프와 작품의 구성원리가 「九雲夢」의 그것과 유사한 점에 비추어 그 성격을 규명하고 동일한 創作原理가 內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보고자 한다.

15) 「海東異蹟(下)」에 기록된 이들의 행위에서 위의 구조와 일치되는 부분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洪萬宗, 「海東異蹟(下)」, 崔昌錄 『韓國神仙小說研究』 (螢雪出版社, 1984) 所收影印本)

〈崔致遠〉

…蓋致遠自以西仕東歸俱值亂世屯蹇得咎自傷不遇無復仕進意逍遙自放山林江海營築栽植籍書史嘯咏風月……

…致遠爲儒仙蓋尋文字聲名風致殊絕古今所云列仙之儒故遂疑其仙或者仙史所記花郎之流歟

〈金時習〉

…史吞慶州金鰲及雪嶽寒浮皆所樂居者自贅世翁寒子梅月堂或曰東峯僧名雪岑伴狂自隱乖詭譎奇以取怪憊瘵長往行名山澤足跡殆遍至成廟時忽長○娶安氏女勸之仕不應自言通經史兵法百家困言天地物化以自廣或云能氣機運化之法

16) 崔昌錄 教授는 이들 說話가 실린 資料를 제시하였다.

① 古鶴集(趙汝籍) ② 海東異蹟(純陽子) ③ 鶴山閑言(辛敦復) ④ 錦浮筆談(雲峯居士徐氏) ⑤ 東野棠輯(李源命) ⑥ 梧浮集(李宜白) ⑦ 歷代三教源流, 道教篇(編者未詳)

「韓國神仙小說研究」(螢雪出版社, 1984), p. 16.

「洞仙記」에 나타난 사건의 主要發端은 西門勣의 遠去遺世之意¹⁷⁾이다. 자신의 이런 ‘一向意趣’를 실현하기 위해서 친구와 함께 山川遊覽을 떠나게 되고, 결국 세 여인과 佳緣을 맺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풍류에는 ‘善吹笛’의 자질이 주인공에 갖춰지는 것이 제격이다. 즉, 「洞仙記」에서의 西門勣은

勣嘗善吹笛飄然有遠去遺世之意

이다.

「九雲夢」의 楊少游도 西門勣과 마찬가지로 풍류에 어울리는 자질을 갖추고 있다. 그는 ‘雖有素癖 而未遇賢師 不得其妙處矣’라고 하였지만 藍田道人 앞에서 風入松을 연주할 만한 재주를 지녔다. 이에 西門勣이 피리(笛)를 가지고 유람의 길을 떠난 것처럼 楊少游도 道人에게서 받은 一簫一籥과 「彭祖方書」를 지니고 과거길에 오른다.

「洞仙記」와 「九雲夢」에서의 男女主人公의 結緣은 그들의 이러한 吹笛彈琴의 재능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 楊少游와 鄭瓊貝·蘭陽公主와의 결연담이나 洞仙과 西門勣의 結緣譯이 그러하다.

이와 같은 양 作品의 音樂을 매개로 한 풍류행각은 道教的 立場에서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다. 물론 儒教的 禮樂이나 宗廟祭禮樂 등을 상기할 수도 있으나, 최소한 양 作品에 나타나는 풍류와 연관된 것일 경우에는 道教的이라 생각된다.

「洞仙記」에서 女主人公인 楚始가 능했다는 洞仙詞의 道教的 성격에 대해서는 前項에서 詳論한 바이나 作品에서 다시 한 예를 보면,

…唱如平仙之響和若送賓之詞苟非水仙來舞洞賓遊歌來

라 하여 特別히 洞仙詞의 道教的 性格을 드러낸다. 이 점은 「九雲夢」에서 보다 여실히 나타난다. 楊少游가 만난 藍田道師는 仙人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그가 전수한 「彭祖方書」¹⁷⁾ 역시 道書이다. 그리고 瓊貝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또 鄭少姐 앞에서 연주했던 ‘霓裳曲’도 洞仙詞와 같이 道教的 색채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九雲夢」에서의 音樂은 鶴이 와서 춤추는 仙樂이다.¹⁸⁾

17) 上古의 仙人 彭祖가 지은 글

18) 是夜蘭陽適吹簫月下 以調鶴舞矣 曲罷青鶴飛向玉堂而去 舞於翰苑 是後宮人盛傳楊尚書吹玉簫 舞仙鶴其言流入宮中 天子聞而奇之

이와 같이 音樂과 道教의 關係에 대해 車柱環教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¹⁹⁾

우리 땅의 仙家는 音樂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四仙이 遊遊한 江陵 鏡浦臺에서는 달밤이면 箏簫의 소리가 울려난다는 傳說이 있는데 그것은 四仙이 죽지 않고 여전히 樂器를 연주하고 勝地를 逍遙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四仙의 中心人物인 永郎의 道를 계승한 사람으로 전해지는 女流仙家 寶德은 琴을 켜고 <그것을 타면서> 노래를 불렀다(抱琴而歌)고 한다.

위의 글에서 보면 道教의 仙人들이 즐겨 다룬 악기는 ‘琴’과 ‘簫’이다. 양 作品에서도 역시 琴, 笛, 簫 등과 같은 악기로써 남녀주인공들이 행세하고 있는데, 이것은 道人들의 행적을 效倣하여 道教의 분위기를 노출시키려는 作家의 의도에서이다. 이러한 道教의 音樂의 분위기에 대하여 車教授는 다시,

音樂의 藝術性的 神祕와 仙道の 奧妙를 連結시켜서 생각하는 氣風을 鄉歌의 神通力에 驚異의 情을 품었던 傾向과 더불어 方術의 迷妄을 超克하여 새로운 意識의 境地를 開拓한 것이라 볼 수 있고...²⁰⁾

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九雲夢」이나 「洞仙記」 모두 道教의 音樂世界를 바탕에 두어 作品의 美的 감흥을 배가시키고 있는 점에서 서로 이웃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九雲夢」이 夢中世界의 향락적 요소에 단편적으로 道教의 色彩를 가미할 뿐 결국은 佛教의 論理로 귀착하는데 반해, 「洞仙記」는 끝까지 道教思想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하겠다.

「九雲夢」은 꿈 속의 세계와 꿈 밖의 세계가 대립되어 그 승패가 계기적으로 진행되다가 꿈 밖의 세계가 긍정되는 복합구조로 설정되어 있다.²¹⁾ 「洞仙記」도 fabula²²⁾에 의해서 재배열하면 <天上界 — 人間界 — 理想界>로

19) 車柱環, 앞의 책, pp. 115~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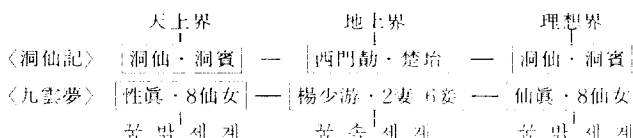
20) 車柱環, 앞의 책, 같은 곳.

21) 金一烈, 「九雲夢新考」, 丁奎福外二人共編, 『韓國古小說研究』(二支出版社, 1983, p. 374)

22) <fabula>는 논리적이고 연대적인 순서로 재배열한 내용 또는 내용의 주요소이다. 이에 비해 plot은 제시의 순서 때문인 텍스트의 내용을 말한다. 이 두 정의를 결합해 보면, <fabula>는 작가들이 재료로 사용하는 사건을 時間的 因果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 체계지만 작가는 그것을 人爲의 — 藝術的인 순서로 기술

展開된다. 「九雲夢」이 결국 理想世界(꿈 밖의 세계)로 귀결되는 것처럼, 「洞仙記」도 仙境에 들어감으로써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즉 「九雲夢」의 꿈속의 세계와 「洞仙記」의 인간세계가 중국에 가서는 극복된다는 점에서 同軌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점은 특히 양 작품의 남녀주인공명을 통해서 더욱 확실히 파악할 수가 있다. 「九雲夢」의 꿈 밖의 세계에서는 性眞과 八仙女였다. 그러나 夢中世界에서 楊少游와 2妻 6妾의 각각의 이름으로 분리위치며, 다시 覺夢 후에는 性眞과 八仙女로 돌아간다. 「洞仙記」에서도 天上世界의 洞賓·洞仙이 人間世界의 西門勣과 楚殆로 되었다가 다시 仙境으로 돌아감으로써 같은 신분(즉 이름)을 얻고 있다. 이를 圖解하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 작품 모두 〈天上界(꿈 밖 세계) — 地上界(꿈 속 세계) — 理想界(꿈 밖 세계)〉에 대응하는 〈天上名 — 地上名 — 天上名〉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양상을 지니고 있다.

「洞仙記」나 「九雲夢」에서의 地上界(꿈 속 세계)는 克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결국 「九雲夢」의 夢中世界와, 「洞仙記」의 山川遊覽과 結緣過程 등은 理想世界와 現實世界의 對立構造를 통해 理想世界 優位の 작가의식을 반영하려 하는 事前裝置로 볼 수 있는 것이다.

4. 人物의 關係樣相과 意味

4. 1. 繼起的 對立으로서의 人物關係

「洞仙記」의 發端部 前半에서 제기되는 人物對立은 궁극적으로 西門勣이 山川遊覽을 나서게 되는 正當性을 獲得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주어져 있다. 여기에서의 대립은 ① 西門勣→母夫人, 劉氏 ② 西門勣→張萬戶, 崔淦과의

하는데, 이것이 바로 plot을 구성한다는 것이된다.(Ceare Segre, "Analysis of the Tale, Narrative Logic, and Time", 崔翔主譯, 金炳旭編, 『現代小說의 理論』, (大邦출판사, 1986) p. 58.

관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西門勣은 ‘傀儡不拘世’하여 ‘瓢然有遠去遺世之意’의 인물이다. 世上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世界 內的 普遍的 秩序, 즉 당대의 儒敎中心의 社會 秩序에 拘束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母夫人 崔氏는 當代의 그러한 社會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日常의 價值基準에서 일탈한 西門勣에 대한 母夫人의 아래와 같은 책망은 당연하다.

丈夫之降生上焉怙恃而不而妻子立揚以顯之鞠育以安之取高第行邵德孝于父忠于國
即其職分也今汝放曠是任落落自如將欲何爲者

母夫人의 책망은 ‘孝’ ‘忠’ ‘治家’의 내용으로 집약된다. 이것은 바로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儒敎의 德目을 나타낸다. 孝와 治家は ‘修身齊家’로 家庭單位的 문제이고, 忠은 ‘治國平天下’로 社會·國家單位的 문제이다.²³⁾ 西門勣은 修身齊家도 治國平天下도 이루지 못하는 인물이다. 夫人 劉氏 역시 男便의 立身揚名을 바라는 社會內的 立場에서 있음을 볼 때,²⁴⁾ 西門勣과 母夫人, 劉氏 사이의 對立은 심각하다. 그러나 西門勣은 社會의 高擧 化된 기존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母夫人의 勸戒를 따라 科擧에 응한다. 10餘年에 걸쳐 응과하나 그 결과는 낙방이다. 西門勣이 응과하는 것은 社會 內로 귀속하고자 하는 의지의 일단이다. 그러나 社會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富貴功名은 當代의 社會의 要請이지마는, 宦路의 길을 막음으로써 그 자체의 모순을 노정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西門勣은 人生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富貴功名이라는, 즉 기존체제가 궁극적가치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회의인 것이다. 그것은 그의 친구 崔滄과 張萬戶와의 對話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張生은 ‘男兒가 世上에 나서 무엇을 한 것이가’라는 西門勣의 물음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立德立言莫如立名立名又莫如逢時吐氣方今北馬奏唱不已野狐昇榻漢頌不絕此及
大丈夫得志之秋也正欲腰青弄手白羽駕八飛技六塵鳴玉帳之雄風掃金門之腥穢身居
頗牧之右功出晨城之首則祖先之榮二及子孫之福也

때를 만나 氣를 吐하고 변방의 적을 토벌하여 將相의 壇에 오르는 것은

23) 黃滄江, 『朝鮮王朝小說研究』(財團法人韓國研究所, 1978). 138 참조.

24) 劉氏亦端好人也尋常觀勉期揚異號.

祖先의 榮光이고 子孫의 福이라는 것이다. 崔公은 이에 대해 ‘詩酒風月로 낙을 삼아 興亡盛衰와 늙어짐을 잊어 버리고 살아 가겠다’²⁵⁾고 한다.

이런 張生과 崔公의 見解를 西門勣은 ‘後世에 이름을 남기는 것일 따름이다’²⁶⁾라고 論駁한다. 그래서 西門勣은 後世에 남기는 이름보다도 眼前의 樂을 취하는 것이 生에 대한 價値라고 主張하게 된다. 後世에 연연하는 삶에서 벗어나 단지 眼前의 福樂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西門勣은 人生態度에 근거하고 있다.

須取眼前樂何者兩儀肇判人在其間五福分疇壽位其先上壽百歲中壽七十下壽不遇四五十得其下者頗有之故中壽不可期況其取上乎信所謂旬月之間開口而笑者不過四五日諸君手中之蓋誠在於手中者適以今日而已今日以後無復一日則竟知誰家之日月耶

人生은 덧없이 흘러가는 것, 무릇 4·50歲도 못사는 人生에서 今日의 席席 조차도 後日에는 또 다시 기약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西門勣은 生의 가치를 기존 관념에서 찾을 수가 없다. 마땅히 그 代案을 찾아야만 한다.

落地人生將爲虫鶴會不如適意遨遊自任天放隨其所欲以寬心地言之及北竟已豁矣寓形宇內不覺天地之大遊神物表不見山川之廣方寸之間磊磊之志駕言而鴻之可乎

위의 西門勣의 말에서 그가 추구하는 바가 다소간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강한 불신에서 비롯하여 현실에서 벗어나서 山川之間에遨遊自任하는 것이다. ‘身後之名’은 無常한 것, 헛된 것으로 有限한 人生에서 어떤 의미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眼前의 즐거움을 취하여 뒷 이름에 연연하지 않고자 하는 것’²⁷⁾은 세상영욕에서 초탈하려고 하는 의지로 승화되고 있다.

이같이 보면, 西門勣의 山川遊覽을 통한 自己理想의 구현은 곧 ‘江海之人’ ‘避世之人’²⁸⁾의 隱逸思想을 基調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隱士들의

25) 至於江上一絲之風克扶九鼎之重窓下一張之琴能發六之經之趣迹運漁樵契合飛走得江山之有助風月爲資瞻資瞻甲乙之人舍詩酒爲年殊不知興亡盛衰之漸又安知老將至乎古人所以脫落無累一於斯得吾欲與子終焉

26) 兩君之志要皆身後之名耳

27) 不計身後名 / 適取眼前樂

28) 朴晨義 教授는 隱士를 ‘山谷之上 非世之人’과 ‘江海之人 避世之人’으로 나누고, 前者는 어느 군주에 대한 감정상의 不平 또는 군주와 조화되지 않는 사상이

高踏的 意識과 超世間的 醉樂思想은 바로 道家, 道教的 思想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볼때,²⁹⁾ 西門勣의 의지는 그런 思想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4. 2. 主 對立으로서의 人物關係

道教·道家的 理想을 구현하기 위한 계기로써 주어진 山川遊覽은 중국적으로 그것의 완전한 成就段階 — 즉 爲化神仙 — 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宗教的 窮極目標에 이르는 데에는 당연히 現世的 修道過程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佛教에서도 苦海의 此岸에서 安穩無苦한 解脫涅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六度³⁰⁾를 행하여 現世的 善業을 쌓아야만 한다. 道教에서는 주로 胎食, 房中, 斷穀, 不寒, 不熱, 辟五兵, 隱淪, 禹涉, 入山符 등의 실천행위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得道神仙하기 위한 修鍊過程으로 주어지 있다.

「洞仙記」에서 道家, 道教的 理想에로의 편입의지가 發端部에서 계기로써 주어진 이상, 그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中間段階의 修鍊過程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洞仙記」에서는 敍上한 教理的 次元의 修鍊過程이 나타나지 않고 洞仙과 西門勣의 結緣過程에서 빚어지는 수난과 극복이 주를 이룬다. 이것은 作品에서 人物 間의 갈등과 사건의 다양성을 주어 소설적 흥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창작의도에서 비롯하고 있다. 이런 사건들의 연주는 고난에 찬 인생의 진면목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理想世界에 대한 염원을 더욱 확대시키고자 함이다. 그래서 보다 本質的인 측면에서, 「洞仙記」의 展開部の 내용 — 人世에서의 苦行 — 은 道教的 修鍊行爲 — 教理的, 修道的 苦行 — 과 意味上으로 상통하는 일면이 있다.

우선, 洞仙과 西門勣은 하늘이 정해준 관계에 있다. 西門勣에게 현몽한 黃帽青衣者는

洞賓洞賓汝逢洞仙可謂三生好緣矣

라 하여 洞仙과 前世, 現世, 來世의 三生因緣이 있음을 주지시켜 준다. 天

있는 사람이고, 後者는 祿仕를 非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西門勣은 애초 과거에 뜻이 없었고, 응과한 것도 母夫人의 훈계에 따른 것이고 보면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韓國文學背景研究(上)』(二友出版社, 1980) p. 234

29) 隱逸思想이 곧 道家·道教的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나 西門勣의 性格과 연결해서 이해할 때 이런 접근이 가능하리라 본다.

30) 六度: 布施, 戒, 忍辱, 精進, 靜慮, 慧

定因緣에 의해 결연을 맺는 것은 天의 理致이다. 만약 이러한 하늘의 섭리를 거역하면 逆天이다. 「洞仙記」에서는 安琦가 洞仙과 西門勣의 사이에서 逆天者로 등장하고 있다.

安琦는 洞仙을 차지하기 위해 계교로써 西門勣을 연옥에 감금시키고 洞仙에게 편지를 띄워 다음과 같이 말한다.

身爲府妓命懸於公禮在從人範移於時今若從我則深宮廣夏之是安執綺膏梁之是奉名何累於妓籍役何煩於鄙事榮莫大焉樂莫如不順志則昏朝任事之苦杖撻死傷之可慮梁柱之信世以爲笑溝瀆之諒人莫知之甚無名也況彼西門更不佳期燕天萬理去去無涯團籬困苦之中愁歎爭功瘴霧蠻烟之間疾疫易乘安知既至於溘然耶夫以有限之生護守無益之盟畢竟有知雖悔昌追青春荏苒白日斯須永無歸之漸花無十日之紅繁華何處行樂誰邊獨曾青塚空歸月夜之魂不共楚王只添着花之淚苦節不可貞矣小諒不可行矣其幸思而復思無自埋沒

府妓로서의 命은 公에 있고, 福은 사람에 따라 있으며, 절제된 때를 따라 옮기는 것이다. 이미 西門勣과의 현실적 만남이 불가능한 狀態에서 굳이 정절을 지켜 杖撻死傷의 화를 입을 필요가 있으나 하는 安琦의 嫌박과 회유적 말이다. 그러나 洞仙은 敢不從命의 이유로써 아래를 내세우고 있다.

燕飛則必雙飛鵲不孤栖物皆求偶人亦有情今承垂教不敢從命竊有寸丹聊以暴白妾在青春身事娛樂門前舊客枕上新人戢戢迎送幾度悲歡頃緣上客自去而至不棄憔悴特許心情有偕生偕死之盟

제비와 까치와 같은 하찮은 비둘 조차도 짝이 있는데 偕生偕死之盟의 사람에게 이같은 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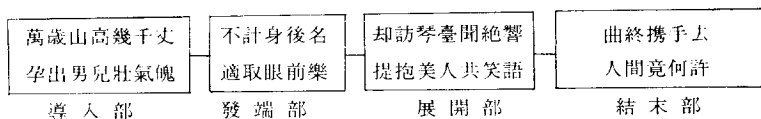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더욱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더욱기 西門勣이 燕獄에서 죽었다고 하는 安琦의 거짓으로 해서 失意에 빠진 洞仙은 결국 7日絶食 끝에 목숨마저 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安琦와 洞仙 사이에 제기되는 主 對立의 要素는 洞仙의 죽음과 그 후의 再生으로 해서 解消되고 西門勣과 해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以上の 논의에서 보아 온 主 對立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난과 극복양상이 실제로 作品의 全體의 構成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主 對立의 상황은 분명히 洞仙과 西門勣 사이의 '愛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既存의 연구가 本 作品을 愛情

小説이라는 類型 속에 편입시키고 있는 이유가 된다. 愛情小説은 男·女主人公들이 自意에 의해서 通情하고 密會하며, 설사 愛情事件 외의 事件이 등장되어도 어디까지나 愛情的 주체성을 살리기 위한 사건에 지나지 못하게 된다.³¹⁾ 그렇다면 「洞仙記」의 主題가 ‘男女間的 愛情’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여기서 再考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本 作品은 洞仙의 名을 標題로 한 소설이면서, 西門勣의 出生譯이 導入부와 發端부에 결구되고 展開部 以後로는 다시 洞仙이 事件의 核心을 담당하는 특수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즉 作品의 사건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人物 - 즉 主人公 - 이 구성에 따라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意味上的 主人公>과 <表現上的 主人公>이라는 상황으로 설명된다.³²⁾ <表現上的 主人公>이란 洞仙을 뜻하는 것으로 標題로부터 비롯하여 展開部에서 집중적으로 事件을 담당하는 인물로 부각되어 결말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意味上的 主人公>이란 西門勣을 뜻하는 것으로 導入部에서 發端部 그리고 結末部에서 노출된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作品의 序頭에서 西門勣이 부른 노래를 중심으로 構成上的 특징을 일별해 볼 수 있다. 이 노래는 이후 西門勣의 행적에 관한 豫言的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



위를 통해 보면 이 노래의 構成은 실질적인 作品의 構成과 일치하고 있

31) 鄭村東, 『古代小説論』 (蜚雪出版社, 1970) p. 282.

32) 古小説에서 事件의 核心을 담당하는 男主人公과 女主人公이 各各있지만 作品의 중심을 담당하는 人物이 양자사이에서 노출되기 마련이다. 이는 標題로 사용된 인물이 주가 되는 것으로 통상 이해되나, 愛情小説에서 反對로 標題의 女主人公이 아닌 男主人公이 주가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비록 표제는 女性名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男性이 끝까지 主題意識을 뒷받침하는 事件의 核心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意味上 및 表現上의 主人公이 일치, 男主人公으로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洞仙記」는 展開部の 시작을 기점으로 사건담당자가 확연히 구별되고 있어 편의상 이런 구별을 해본다. 金一烈教授는 「九雲夢新考」 丁奎福外二人共編 『韓國古小説研究』 (二友出版社, 1983)에서 「九雲夢」의 구조를 ‘論理構造’ ‘敘述構造’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趙東一教授는 「葛藤」에서 表面的 主題와 裏面的 主題로 나누고 있는데, 이러한 方法論을 원용하여 본 作品의 성격을 이해하고자 한다.

다. 이는 바로 西門勣의 행적을 통해 作品의 意味를 노정시키고자 하는 作家意識이 투영된 것이다. 따라서 主題意識을 뒷받침하고 있는 事件을 담당하는 西門勣이 意味上的의 主人公으로 作家의 의도를 代行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 洞仙을 중심한 애정담은 展開部〈却訪琴臺聞絕響 / 提抱美人共笑語〉속에만 포함되어 있어, 作品의 全體的 構成을 支配하지는 못한다. 洞仙을 中心한 愛情談은 西門勣의 인생논리 속에 한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즉, 導入部와 發端部에서 제기된 인생에 대한 態度가 結末部에서 매듭짓는 중간단계에 洞仙을 中心한 愛情譚이 결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개부의 애정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상황들은 작품의 전체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인가?

〈4. 1〉에서 西門勣에게 계기로 주어진 것은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이다. 이에 대한 반향으로 地上 차원에서 獲得할 수 있는 최선책인 山水之間 遨遊自任하여 不計身後名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그 山川遊覽의 결과는 결국 愛情이다. 즉 地上에서 獲得할 수 있는 最高의 價値는 男女間의 愛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地上에서의 愛情에는 필연적으로 슬한 고난과 시련이 수반되고 있다. 社會惡과 不條理가 무서운 기세로 엄습한다. 將相의 壇에 올라 天下를 손아귀에 쥐는 것도, 孔孟의 德을 쌓아 修身의 一生을 살아가는 것도 결국 허망한 인생사에 불과한 것인데, 이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地上的 福樂인 애정의 끈을 이어려는 것도 가능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西門勣은 이러한 現實苦가 없는 仙境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즉, 西門勣과 洞仙의 愛情을 통해 作家가 표현하고자 한 것은 現世의 苦難의 양상을 더욱 극대화하여 現實逃避의 思考를 가일층 확대시키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本條의 冒頭에서 主 對立의 상황은 道敎的 修道行爲 - 苦行 - 와 意味上으로 상통하는 일면이 있다고 하였다. 作品에서 洞仙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愛情譚 속에 포함된 고난과 시련은 바로 西門勣과 洞仙이 仙境으로 나아가는 論理的 근거가 된다. 육체적 고통을 극복한 後得道의 경지에 이르는 것처럼, 선경에 대한 열망은 이러한 현세적 고통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떠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表現上的의 主人公〉인 洞仙을 중심으로 보면 「洞仙記」를 愛情小說로 類型化할 수 있으나, 〈意味上的의 主人公〉인 西門勣을 中心으로 보면 다른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作品의 主題를 담당하는 것

은 ‘表現된 것’이 아니라, 作品 깊숙이 내재하는 作家의 목소리 — 즉, ‘意味된 것’이다. 따라서 洞仙記는 비록 愛情譚이 비중이 크지는 하지마는 ‘愛情’ 그 자체가 作品의 主題는 되지 못한다. 오히려 질곡의 人世에 대한 회의와 허무가 주가 되는, 그래서 결국 現實世界와 유리된 別世界에 대한 염원이 형상화된 작품이라 볼 수 있다.

5. 古小說史의 意義

本 作品의 古小說史의 意義를 가능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作者와 創作年代가 不分明한 이유로 해서 他 作品과의 年代記의 比較가 어렵다는 점이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作品 自體에 나타난 作家意識과 作品 構成上의 特徵을 묶어 本 作品의 古小說史의 位置를 조명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본다.

우선 「洞仙記」는 現實否定的 思考方式이 전면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特徵的이다. 당시 가장 두터운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英雄小說系 作品들은 出將入相의 儒敎의 德目을 나타내어 그 성취와 영달의 과정들을 그려내었다. 이들 作品의 主人公은 가장 이상적인 英雄의 形態로 그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本 作品의 西門勳은 治家에 소홀할 뿐 아니라, 科擧에도 낙방하여 탄식하는 인물이다. 또한 現世의 功名에 집착하지 않고 山川遊覽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 이같은 生에 대한 가치는 결국 現實否定的 思考 外에서 싹트고 있다.

壬·內 兩亂을 겪은 時代狀況 下에서 當代人의 意識構造를 대체로 두가지 양상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그 하나는 현실적 질곡을 벗길 수 있는 英雄의 출현을 기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와같은 狀況에서 超脫해 또 다른 理想世界를 꿈꾸는 것이다. 前者가 積極적 社會改革 意志를 반영하고 있다면, 後者는 소극적 逃避意識에서 비롯한다. 前者가 英雄小說의 출현을 자극했다면, 「洞仙記」는 바로 後者에 근거한 소설이다. 「洞仙記」에 나타나는 이러한 도피의식은 결국 桃竹山과 같은 別世界를 상징하게 된다. 「洪吉童傳」의 ‘律島國’이나, 「許生傳」의 ‘無人空島’와 같이, 이상으로 꿈꾸는 社會를 作品 속에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피의식의 근거는 바로 道敎的 敎理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道敎가 비록 現世指向의 宗教³³⁾라 할지라도, 그것은 可視的인 질곡의 사회

를 벗어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일이다. 老而不死하여 神仙의 경지로 이르는 것은 現實의 功名心에서 초탈하여 山川之間에 노닐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洞賓傳說의 차용은 합리적이다.

어쨌든 이 時期에 백화난만했던 英雄中心의 小說의 모퉁이에서 人間的 苦惱와 煩悶을 小說化한 作品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古小說史에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현세적 영화와 영웅으로서의 비범성만 부각시키는 古小說의 일반적 구성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人生에 대한 진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 代案을 제시하는 철학적 사고를 作品 속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洞仙記」가 人生의 밝은 면 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古小說에 대한 편견을 단숨에 불식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6. 結 論

「洞仙記」는 洞賓傳說에서 素材를 빌어 와, 主人公 西門勣과 洞仙 間的 愛情談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이다. 既存의 단편적 논의가 본 作品을 단지 愛情小說의 범주에 포함시켜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 데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方法論을 원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수용된 說話가 작품구조 전체에 미치는 影響을 고려하면서, 既存 神仙說話와의 비교를 통해 구성상의 特徵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結論的으로 본 작품이 道教思想을 바탕에 두어 人間的 苦惱와 煩悶을 表現하고 있음을 밝혔다. 여태까지 논의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作品 속에 命名된 人名, 地名, 標題를 통하여 이 作品이 道教思想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보았다. 동시에 본 작품이 洞賓傳說을 수용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그 思想的 背景을 분명히 하였다.

2. 「九雲夢」의 구조적 특징은, fabula에 의해서 재배열한 「洞仙記」의 그것과 一致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主人公이 現實世界를 극복하고 理想世界를 회구한다는 공통성을 갖추고 있다.

3. 發端部に 나타난 西門勣을 중심한 價值觀의 對立을 ‘繼起的 對立’으로 파악하였다. 친구와 對話에서 西門勣은 ‘不計身後名’을 자기논리로 주장하여 결국 山川遊覽에 나선다. 이는 바로 道教的 隱逸, 逃避思想을 기조로 하고 있다.

33) 佛教에서와 같이 來世를 상징하지 않고 現實次元에서의 不老長生을 꾀한다는 점에서 道教를 現世的 宗教라 해석한다.

4. 安琦와 洞仙과의 對立은 主 對立의 樣相을 취하고 있다. 이 主 對立은 愛情談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결국 인간적 고통과 시련을 노정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써, 西門勛의 人生態度를 合理化하는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

5. 本 作品의 文學的 意義는 人生에 대한 보다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그 哲學的 代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두었다. 그 대안이란 바로 道敎的 人生觀으로서 本 作品의 주제는 이러한 측면에서 간취할 수가 있다.